

광주시 전국 첫 '기업탄소액션' 도입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 자발 감축...배출권 모의거래 허용 중소·중견기업 12개사-에너지공단과 협약...효율 개선 등 지원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은 ▲한국알프스(대표이사 김구남) ▲오택캐리어(정필경) ▲화천기공(권형도) ▲아르네코리아(이성규) ▲광주글로벌모터스(윤봉현) ▲썬앤피엔에스(김운섭) ▲그린테크(장영호) ▲썬앤하이텍(김용구) ▲썬하이크리아(오종훈) ▲썬무등기업평동(박건우) ▲동진기업(양오열) ▲썬인트리(김홍중) 등 12개사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시스템이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감축의무가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탄소액션 기업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한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특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1%이상 감축하고,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감축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에 대해 모의거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지난 4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배출권 모의거래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탄소액션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는데도 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으로,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자 엄청난 결단"이라면서 "기후위기는 모두가 당장 행동해야 할 문제인 만큼 광주시도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들이 30일 무안 망운면 상가지역에서 민간·군공항 이전 홍보 전단을 나눠주던 중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행렬과 마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통합 공항' 후보지 무안 망운면서 홍보전

강 시장 '약속의 편지'·홍보물 배포...군민 의견 청취 등

광주시가 민간·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에서 홍보전을 이어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상공회의소 직원, 무안 통합 공항 찬성단체 회원 등은 30일 무안군 망운면 상가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24일 무안읍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망

운면 상점들을 돌며 통합 공항 조성사업 홍보물, 강기정 광주시장이 쓴 '약속의 편지'를 배포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망운면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 시 소음 영향권 지역임을 고려해 안전지역 조성 대책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찬성 여론이 50%

이상 되면 갈등도 완화되고 무안과 광주·전남의 책임자가 만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들을 뵙고 의견을 듣는 등 광주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군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전투 비행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어깨띠와 현수막을 들고 "맞벌 캠페인"을 벌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광주보건대 '글로벌대학' 선정 총력

광주시, 추진단 회의

광주시가 전남대학교와 광주보건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을 돕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김수형 전남대 연구부총장, 오군석 광주보건대 교학부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대와 광주보건대의 혁신기획안 및 실행계획 대표과제 설명에 이어 실행계획서 공동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전남대학교와 광주보건대(대구·대전보건대 연합 신청)가 교육부 '2024 글로벌대학30 공모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

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향후 추진단(TF) 실무회의 운영을 통해 실행계획서에 담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제별 로드맵을 논의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방 대학의 미래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현안"이라며 "올해 예비지정 전남대, 광주보건대가 모두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 2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는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8월 최 최종 1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15개 시·도 공무원 강진서 역량 강화

전남도인재개발원, 교육발전협의회...정책 우수 사례 등 공유

전남도인재개발원은 30일까지 이틀간 강진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15개 시·도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실시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인공지능의 문화와 미래 특강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의견수렴 ▲강진 관광명소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 지방공무

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재개발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는 공무원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상호 소통과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인재개발원은 2024년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 대상 집합·이(e)-러닝 과정 165개 1347기(4만2916명), 도민 대상 교육 5개, 21기(695명)를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번기 농촌 인력 공급 종합상황실 가동

전남도, 인력중개센터 37개·공공형계절근로제 10개소 운영

전남도가 불철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22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제 10개소 운영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근 농촌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한다. 전남도, 시·군, 농협이 협업해 농협지역본부에 광역형 1개소와 시·군별로 지역 단위농협에 36개소가 운영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취약 농가 및 소농 위주의 농가에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한다. 순천농협, 나주배원협, 곡성농협, 고흥 풍양농협·향양농협·팔영농협, 화순 도곡농협, 강진 도암농협, 해남 황산농협, 무안 서남부채소농협 등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인력중개사업은 하루 인건

비가 10만~12만원 수준으로, 사설인력사무소의 통상 인건비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하다. 최소 작업 1주일 전 인력중개센터에 필요 인력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인력 상황과 인건비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농업인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번기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818명을 배정받았다. 이 중 현재 3534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다. 남은 인원도 농가의 영농상황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며, 도청 전 직원은 오는 6월 14일까지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펼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한민국 사장님 ~
아직도 모르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홍보대사
이용식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3배 이내
-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1.5배 이내
(법인사업자는 최대 1배 이내)
- 노란우산 연계 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이내
(연5.0%, 변동금리)
- 어음·수표 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 담보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이내
(연4.8%, 후순위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제 제24-36호(2024.4.4~2024.6.30)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부기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fund.kbiz.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668-3984** | fund.kbiz.or.kr